

백영서 교수

창작과비평사/A5신/312면/13,000원

1990년대 이후 국내 지성계를 이끌었던 두 가지 화두는 '근대성'과 '동아시아 담론'이었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지구화라는 문명적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실천적 지식인들의 고민이 집약된 주제였다. 특히 동아시아 담론은 서구적 근대성을 넘어서기 위한 과제로서 지식인들에게 제출된 핵심적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동아시아 근대의 핵심은 국민국가의 이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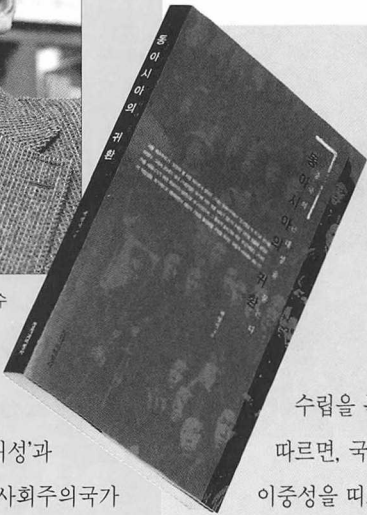
백영서 교수(47, 연세대 사학과)가 펴낸 《동아시아의 귀환》(창작과비평사)은 중국의 근대성을 실마리로 동아시아적 근대성의 기원과 전개과정, 그리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사유를 모색해온 지은이의 문제의식이 관통하고 있는 논문집이다. 백교수가 동아시아적 시각을 구상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관심은 서구적 근대성의 전지구화에 대한 독자적 대응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런 귀결이었습니다. 특히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이후 민족민주운동권이 일국적 시각과 세계체제적 시각의 매개항으로서 동아시아적 시각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서구의 근대경험과 다른 동아시아적 근대의 특수성으로 백교수는 '국민국가의 이중성'에 주목한다. 20세기 동아시아에서 근대문명은 서구의 침탈 위기에 놓인 개별사회가 집단적 주제인 '국민'을 창출해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국가

'복합국가'로 새 정치공동체의 가능성 모색한다

《동아시아의 귀환》 펴낸 백영서 교수



1990년대 이후 국내 지식사회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동아시아 담론이었다. 백영서 교수는 《동아시아의 귀환》에서 동아시아 근대성의 핵심으로 국민국가의 이중성을 파헤치면서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대안으로 복합국가를 제시한다. 백교수의 복합국가 구상은 분단체제의 극복과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획일화 논리에 맞설 동아시아적 단위의 실천적 과제다.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국민국가는 해방과 억압이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동아시아의 근대화는 서구 제국주의의 침탈과 더불어 찾아왔습니다. 외세의 침탈에 맞서 집단생존권을 확보하고 민족적 통합을 이룩하는 데 국민국가의 해방적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국가는 국민 동원체제를 강화하거나 국민과 비국민을 분리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부정적 기능도 수행했습니다.”

국민국가의 해방성을 근대화하면서 억압성을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백교수는 '복합국가' 모형을 제안한다. 이는 “국가권력에 대한 획기적인 민주적 통제의 원리를 관철시킴으로써 한민족 공동체를 통합할 다층적 복합구조의 정치체제를 구상하려는 '지향으로서의 국가'”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 연방제나 국가연합처럼 국가와 국가 사이의 느슨한 결합을 뜻한다.

“복합국가 구상은 국가 자체를 넘어서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국가를 유지하면서도 그 억압성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창출하자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를 수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론 모색

국민국가를 넘어서 복합국가 모형은 일차적으로 동아시아적 단위로 모색된다.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극복하면서 전지구적 자본의 획일화 논리에 저항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지역적 연대가 필

수적인데, 백교수는 이를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로 규정한다. 이는 자기 성찰 속에서 동아시아를 유동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사고와 그에 입각한 실천의 과정을 뜻한다.

“지적 실험으로서의 동아시아론은 아직 객관적 실체가 없는 발상입니다. 동아시아만의 특성이 뭐냐고 물었을 때 어떤 하나의 실체를 규정해 버리면 그것에 쉽게 매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동아시아를 분석단위로 하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실험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죠.”

동아시아를 단위로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실현하자는 백교수의 주장은 자칫 공허한 거대담론의 재판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민중들의 구체적인 일상적 경험이나 실천과 연결되지 못한 논의라는 비판에 대해 백교수는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동아시아 담론이 하나의 지적인 유행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1970, 80년대 지성사와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족민주운동 진영에서 논의됐던 제3세계론과 동아시아론이 어떻게 지성사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지 모색해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현대사 연구자로서 백교수는 '한국인의 중국인식'을 파헤쳐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세기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한국 지식인은 중국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이것이 우리의 역사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재구성해볼 계획이다. — 박천홍 기자